

# 正祖의 抄啓文臣敎育과 文體政策

鄭 玉 子\*

머리말

1. 抄啓文臣에 대한 文體策
2. 抄啓文臣의 作品集 : 奎華名選

머리말

필자는 18세기 후반 이른바 文藝復興期로 지칭되는 正祖時代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實狀에 접근하여 보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正祖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아간 文化政策과 그 추진세력이 될 人才養成의 구체적인 장치인 抄啓文臣에 대한 究明을 위하여 우선 제도적인 면에 조명을 가한 바 있다.<sup>(1)</sup> 本考는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 抄啓文臣의 교육에 나타난 正祖의 文體論을 살펴 보고자 한다. 아울러 文體論에 편승하여 正祖가 얻고자 한 바 政治的 目的에 대한 해명을 목적으로 한다.

抄啓文臣制度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正祖의 文化政策 추진기관인 奎章閣에 37세이하의 年少文臣을 선발하여 再敎育시키는 것으로 그가 施政指針으로 내세운 「繼志述事」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國初이래 中期까지 계속된 湖堂(讀書堂)의 계승임과 동시에 正祖의 세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치적인 포석이었다.

따라서 「文體反正」으로 통칭되어 온 正祖의 「文體政策」에 대한 연구는 이들 抄啓文臣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우선 抄啓文臣을 대상으로 한 正祖의 文體에 대한 策問과 이에 대한 抄啓文臣들의 對策文을 검토하여 抄啓文臣들의 文體문제에 대한 인식내용을 밝히고 다음으로는 그들 抄啓文臣들의 작품들을 수집하여 1792년(正祖 16)刊行한 《奎華名選》 및 1795년(正祖 19) 간행한 抄啓文臣과 成均館儒生들의 試券集인 《正始文程》을 검토하여 抄啓文臣의 教育에 반영된 正祖의 文體政策의 실상에 접근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당시의 정치사적인 측면내지 시대사 연구의 단서를 열어 보고자 하는 의도도 여기에 포함된다.

\* 서울大學校 人文大 專任講師

(1)拙稿 〈奎章閣 抄啓文臣 研究〉(奎章閣 4. 1981).

### 1. 抄啓文臣에 대한 文體策

奎章閣의 설립 동기는 복합적인 것으로 孤立無援의 상태에 있던 正祖가 戚里를 소탕하고 宦寺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세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재를 모으는 목적이 최우선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급박하였던 초창기를 넘기고 정세가 안정되자 비로소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며 차츰 정치색을 표백시키고 문화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sup>(2)</sup>

규장각의 설치규정인 《奎章閣志》는 세번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우선 규장각이 설립된 2년후인 1778년(正祖 2)에 편찬의 下命이 있어 비로소 그 제도적인 정비를 서둘러 다음 해인 1779년에 初草本이 이루어지고 다시 2년후인 1781년에 再草本이 이루어지고 이로부터 3년후인 1784년(正祖 8)에 完成本이 마련된다. 이 完成本奎章閣志에 正祖는 스스로 序文을 썼다.

내가 즉위초에 규장각을 세우고 閣臣에게 志를 撰하도록 명했는데 5,6년이 걸리고도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그 편찬을 게을리한 때문만이 아니라 制度·儀式이 아직 서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내강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1778년에 시작하여 6년여의 세월이 걸리게 된 것은 正祖의 王權과 制度가 1784년(正祖 8)쯤에야 비로소 안정 완성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규장각의 기능을 侍臣·史官·試官·經筵官의 역할을 수행하고 教書·諭書를 代撰하는 것 이었다고 설명한 연구도 있지만<sup>(3)</sup> 이러한 기능이랄까 역할은 한 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정세의 안정과 그 軌를 같이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1781년 2월 29일 이미 內閣의 권한이 된 「備顧問掌詞命」의 권한외에 經筵權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고<sup>(4)</sup> 그 다음에는 史官으로서 「春秋之卿」를 겸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sup>(5)</sup> 다시 宗簿寺의 직능을 첨가하고 있는 사실을 보아 분명하여진다.<sup>(6)</sup>

결국 규장각은 承政院·弘文館·藝文館·春秋館·司諫院·宗簿寺 등 여러 기관의 기능을 병합하여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一元化하여 즉위초부터 시정책으로 들고 나온 文風振作을 위한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아감과 동시에 閣臣으로 「清華之職」을 삼아 士大夫의 人材를 모아 「右文一念」으로 표현되는 文治의 前衛部隊로 삽고자 한 것이다. 즉 중견 이상의

(2) 이하 上揭 拙稿 pp.1-6 參照.

(3) 金龍德. 〈奎章閣考〉(中央大學校 論文集 2. 1957).

(4) 《內閣日曆》8冊 정조 5년 2월 29일 「領議政徐命善曰 內閣既是備顧問掌詞命之地 則經筵兼帶 館閣宜無異同 以此定制 似好矣」.

(5) 上揭書 9冊 정조 5년 3월 10일 「傳于政院曰 內閣之職 備顧問稽典故焉 設有考史之事 須兼春秋之卿 可以限同舉行」.

(6) 上揭書 정조 5년 3월 24일 「以備忘記 傳于鄭民始曰 本閣一則倣宗簿寺」.

지위에 오른 기성의 인재들은 奎章閣의 요직인 提學·直提學·檢校 등 閣臣에 임용하여 「友臣之道」를 다함으로써 親衛勢力を 구축해 나아가면서 계속적인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서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抄啓文臣制가 강구된 것이다. 상기한 《奎章閣志》初草本에는 아직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1781년 이후에 이루어졌을 再草本에는 培養條에 抄啓·試講·試製·親臨·在外·賞罰로 항목지어져 있다. 그리고 1784년 完成本에 비로소 教習條로 완비되어 抄啓·講製·親臨·賞罰로 간명하게 요약되어 있다. 이는 규장각의 內閣소속으로 「上以極遵奉謨訓之道 下以盡作成人材之方」이라는<sup>(7)</sup> 규장각 설치의 二大名分 중 「作成人材之方」의 명분을 살린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과거에 의해 흡수한 成均館 儒生들의 교육과정이 있겠고 다음 단계로는 이미 벼슬길에 올랐으나 年少하고 品階가 낮은(37세 이하 參外) 文臣들을 선발하여 재교육시키는 방법이 고려된 것이다. 물론 그 유래는 國初의 賜暇讀書制度나 讀書堂에서 찾을 수 있고<sup>(8)</sup> 法的 準據는 《經國大典》禮典 嘉獎條의 月課文臣制와 專經文臣制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면서 正祖에 의하여 再構成된 것이다.

正祖는 이를 抄啓文臣들의 교육에 대단한 열성을 기우리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강구하는 바 그 중의 하나가 親試를 행하는 조치였다. 이 때에 내린 策問이 상당수에 달하는데 여기에서는 문제의 文體에 대한 策問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1789년(正祖 13) 抄啓文臣 親試에 내린 御製의 文體 策問 한 편과<sup>(9)</sup> 親試의 御製는 아니지만 역시 抄啓文臣을 대상으로 한 課試에 년 년월일 미상의 文體 策問을 찾아 볼 수 있었다.<sup>(10)</sup> 前者에 대한 對策文은 세 사람의 것을 찾을 수 있었고<sup>(11)</sup> 後者에 대한 對策文으로는 두 사람의 것을 찾을 수 있었는데<sup>(12)</sup> 여기서는 前者인 1789년 親試의 御製策問과 對策문을 검토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1789년(正祖 13) 11월 親試의 御製策問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글이란 一代之體가 있어서 世道에 따라 汚隆하므로 그 글을 읽어서 그 시대를 논할 수 있다.<sup>(13)</sup>

(7) 《奎章閣志》完成本 跋文(金鍾秀 書).

(8) 《奎華名選》序文(金憲 書)「夫我聖上御極之初 建奎章閣 寔遵光廟故事 而與宋之龍圖天章 同一揆也 又倣國初湖堂之例 稽明朝文華之例 特選年少文臣之有文學者」.

(9) 《弘齋全書》卷50(太學社本) 제 2 챕 pp.81-2 策問 文體.

(10) 上揭書 卷49 pp.65-6 策問 文體.

(11) 《奎華名選》4.癸卯選 1에 제 2회초계문신인 沈晉賢의 것이 있고 南人實學派이며 제 6회(1789년) 초계문신인 丁若鏞의 것은 그의 문집 《與猶堂全書》第 1集 卷 8에, 제 3회(1784년) 초계문신이며 老論 北學派인 李書九의 것은 역시 그의 문집인 楊齋集 3冊 卷7(규장각 고도서)에서 찾을 수 있다.

(12) 제 1회 초계문신인 李益運과 李錫夏의 것이 있는데 前자는 《奎華名選》 2冊 卷7에 後자는 3冊 卷15에 있다.

(13) 《弘齋全書》卷50 策問 文體「王若曰 文有一代之體 而與世道相汚隆 讀其文 可以論其世也」.

이러한 발상은 동양 古來의 고전적인 것으로 文體論에 있어서의 正祖의 기본적인 이론이다.<sup>(14)</sup> 이어서 그 실례로서 중국 역대 왕조의 興亡盛衰와 그에 따른 文體내지 文風의 隆盛과 쇠퇴를 열거하고 결론적으로

文體의 得失이 世道의 盛衰와 관련이 없다 할 것인가.<sup>(15)</sup>

하고 강조 반문하였다.

浮華한 것을 고쳐 大誥(書經의 篇名:筆者註)가 옳은 作品임을 깨우쳐 주고 險怪한 것을 내쳐 버려 學體에 있어 케케묵은 옛 풍습을 깨뜨려 버리려 함이니 풍속을 인도하는 방책은 본래 言語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올바로 쓰아 가는 요체는 다만 取捨밖이 아니나.<sup>(16)</sup>

고 재차 반문하고 이어서

속되다 하여 宮體・俳體의 나무람이 있고 괴이하다 하여 時學・時文의 구짓음이 있으니 이는 장차 氣格이 사람을 따르니 고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나? 아니면 獎進之道가 올바름을 잃어 일절하여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나? 데개 글이란 써 세상에 따라 내려가는 것이니 體는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sup>(17)</sup>

하여 文體論에 언급, 옛날의 宮體・俳體 및 오늘날의 時文・時學의 존재를 비판하면서 결국 文體란 世道에 따라 변화한다는 이치를 다시 강조하여 그것을 中國 歷代의 治道와 그 시대에 따르는 文風을 對備시켜 實證하고 나아가 我朝 즉 朝鮮 역시 그러한 모범을 보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다시 말하여 기존의 文風이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근대에 와서 그것이 변질하게 되었음을 우려하여

근래 文風이 점차 변하여 소위 摩觸之士(문장가)가 詩書 六藝之文에 근본을 두지 않고 머리를 박고 마음을 쓰느니 도리어 稗家小品之書요, 빌해서 詩文을 쓰느니 駢驪(儺)之作이니 붓이 종이에 멀어지기도 전에 氣가 이미 索然하여 비유컨대 혼수상태의 사람이 때때로 내지르는 헛소리나 찰고대의 같은데 스스로는 기교를 다렸다고 생각한다.<sup>(18)</sup>

고 당시의 文風을 비판하고 있다. 詩書 六藝之文이란 곧 六經의 글을 일컫는 것이며 六經에 근본을 두지 않고 稗官小品之書, 다시 말하면 明清의 稗官小說이나 形式美에만 집착하는 六朝이래의 駢駢體의 詩文만이 성행하는 文苑의 풍조를 경계하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文風은 前代未聞의 것으로 아무 데도 쓸모 없는 것이라고 비평하고

(14) 抽稿 〈正祖의 學藝思想〉(韓國學報 11. 1978) 參照.

(15) 註(13)과 같음. 「抑亦文體之得失 不關世道之盛衰歟」.

(16) 上揭書「欲革浮華 而大誥是作 黜去險怪 而學體丕變 蘭俗之方 本不在於言語 而正趨之要 實不外 於取舍歟」.

(17) 上揭書「俚之而有宮體俳體之譏 謂之而有時學時文之譏 是將氣格之隨人 而莫之可矯歟 毋或獎進之失宜 而轉以成習歟 案文以世降 而體不得不變」.

(18) 上揭書「近來文風漸變 其所謂摩觸之士 不本乎詩書六藝之文 埋頭用心 反在於稗家小品之書 發而 為詩文駢駢之作也 筆未落地 氣已索然 譬如昏睡之人 時作謔囁 自以為極其巧」.

내가 이를(文風：筆者註) 위해 근심하고 매양 筵臣을 대할 때마다 文體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되풀이하여 申戒하는 바인데 그 효과가 막연하기만 하다. 만약 嗇啾(시끄럽게 지저귐)의 더러움을 한 번에 씻어내고 함께 醇正한 곳에 돌아가 속에 품으면 經術이요, 밖에 나타내면 文章을 이루어 一代之體를 肅成하고 八方之觀을 새롭게 하자면 그 방법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그대들은 이 策問을 받은 후부터는 近臼(최근의 文體：筆者註)를 파하고 古轍(옛 차취, 즉 옛날의 文風)을 만회하여 내가 空言을 하지 않게 하라.<sup>(19)</sup>

고 끝맺고 있다. 여기에서 「속에 품으면 經術이요 밖에 나타내면 文章이 된다(蘊之爲經術著之爲文章)」라는 언급은 정조의 기본적인 文學理論인 道文一致論의 재천명이며 「近臼를 파하고 古轍을 만회하라」는 말은 그가 주장하는 바 그로부터 100여년전부터 文風이 변질되어 卑俚하여졌다는 언사에 비추어 볼 때<sup>(20)</sup> 100여년전 변질이전의 文風으로 회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면 위에서 「近臼」로 표현된 당대의 변질된 文風내지 文體는 위의 策問 내용에서 찾아 볼 때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단적으로 말하여 「詩·書六藝之文에 근본을 두지 않고 稗官小品之書에 물든 文體」이며 특히 「駢儷體」를 지칭한 것이다. 稗官小品之書란 중국 明·清시대에 와서 문학장르로 성립을 본 小說類로서 三國誌·水滸傳으로 대표되는 作品들인 바 燕行使臣이 구득하여 들여오는 明·清文集속에 끼어 들어온 것이다.

중국문학은 역대로 엄격한 儒家사상의 지배를 받아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詩歌나 詞曲 및 小說 등을 경시하여 왔다. 그러던 것이 明代에 이르러서는 口語體의 白話文學, 白話小說이 대발전을 이루어 문학사상 백화문학의 성숙기를 이루었으며 明末에 이르러서는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사회전체가 타락하는 시대상을 이들 白話小說이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결국 이 稗官小說을 주축으로 하는 白話 文學作品들은 체제비판과 政治風土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反體制的 集團의 형성(예：水滸傳)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합리화시키고 있으므로 王權强化와 王朝復興을 피하던 正祖에게 있어서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sup>(21)</sup>

上記한 바 「操觚之士」가 詩·書 등 六藝之文, 즉 六經에 근본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은 결국 文章家는 六藝내지 六經에 근본을 둔 글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된다. 조선중기 이후 고도의 深化과정을 거쳐 末弊現象을 드러낸 朝鮮 性理學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六經위 주의 經學風을 조성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道文一致論의 원칙위에 六經중심의, 六經에 근본을 둔 文章을 써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 文體 策問

(19) 上揭書「予爲是悶 每對筵臣 未嘗不以變文體之說 反復申戒 不翅勸懇 而聽我藐藐 成效漠然 如欲一洗啁啾之陋 咸歸醇正之域 蘊之爲經術 著之爲文章 肅成一代之體 俾新八方之觀 則其道何由子大夫 其自是策 擧近臼 挽古轍 使予莫爲空言」.

(20) 前揭拙稿〈正祖의 學藝思想〉参照.

(21) 《正始文程》卷1. 壬子 11월 초 6일 「稱則反慕不同俗之俗 自知彙征之莫混 則嗜看十七子發債之譚 至于咳唾揮弄之末」.

은 이로부터 5년전인 1784년(정조 8) 成均館 儒生을 대상으로 한 文體라는 策問과 대조하여 볼 때 政治와 文體내지 文風이 일치한다는 기본적인 발상은 같지만 後者が 文章의 쉽고 어려움, 奇異하고 順함 등 기초적인 文章道를 논하면서 평이하게 쓰여진 데 비하여 前자는 宮體·俳體, 혹은 時學·時文 등 구체적인 文體를 논하고 고도의 文體論을 펴고 있어서 成均館 儒生과 抄啓文臣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다.

위의 策問에 대한 抄啓文臣의 對策文으로 그들의 作品集 《奎華名選》에 뽑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癸卯選(1783년 경조 7) 抄啓文臣 중의 한 사람인 沈晉賢(1747~?)<sup>(22)</sup>의 것이 있다.

우선 正祖의 策問序論에 해당하는 「글에는 一代之體가 있어서 世道와 더불어 서로 汚隆하므로 그 글을 읽어 보면 그 세상을 논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적극 동조하여 中國三代의 글을 최고의 글로 현창하면서 역대의 文章과 文風을 논하고

聖人이 쓰면 그 精微之心法을 千載에 전하고 匹夫가 쓰면 委巷의 咤咤(여론:筆者註)의 형용을 얻을 수 있은즉 진실로 사람으로 하여금 고무되게 하는 것으로 絲竹(음악:筆者註) 이외에 이 글만한 것은 없읍니다.<sup>(23)</sup>

고 하여 글의 중요성과 기능을 강조하였고 다시 歷代의 文體를 나열하여 기술하고 나서

然則觀文之術 其不外乎理與氣乎

라고 하여 氣와 理를 문장론의 기본으로 제시하였다.

大誥(書經의 篇名)가 지어졌어도 浮華한 풍조는 혁파되지 못하였으나 險恠한 것을 내치자 醇古之體가 蔚興하였습니다. 人主의 導率之方으로 言語는 말단이며 主司(시현관:筆者註)가 취하고 버릴 때에 선비가 이상한 것을 쟁아서 따르니 이로써 文體를 不變(캐캐묵은 옛 풍습을 깨뜨려 버림)케 하는 要道를 볼 수 있으며 世尊의 治亂 역시 반드시 教導의 得失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sup>(24)</sup>

라고 설명하고

슬프다! 宮體·俳體는 詩人의 좁은 기교니 氣格의 높고 낮음에 갖추어 논하기에는 부족할까 두렵고 時學·時文은 스스로 拗體(일정한 平仄의 규칙에 의하지 않는 近體詩, 絶句와 律詩의 變格:筆者註)의 큰 병통이니 오로지 일시의 奬進의 실패 때문만은 아닙니다.<sup>(25)</sup>

라 하였다.

이른바 정조의 경계대상인 宮體·俳體내지 時學·時文의 유행은 장려하는 방법이 틀린

(22) 沈晉賢: 本貫 青松, 1771년 司馬試, 1781년 泊製(成均館 시현)에 居首하여 급제하고 있다.

(23) 《奎華名選》4冊 癸卯選1. 卷1. 「聖人用之 而傳千載精微之心法 匹夫用之 而得委巷咤之形容. 則真所謂使人鼓舞於絲竹之外者 莫是文若也」.

(24) 上揭書「大誥作而浮華之風未革 險恠黜而淳古之體蔚興 人主導率之方 言語爲末 主司取舍之際 士趣隨異 此可見丕變文體之要道 而世道之治亂 亦未必不在於教導之得失也」.

(25) 上揭書「嗚呼 宮體俳體 不過詩人之小伎倆 恐不足備論於氣格之高下 而時學時文 自是拗相之大病 痛 不專爲一時獎進之失而已也」.

때문만은 아니라는 논조이다. 이어서 재차 典謨·訓誥 등 古代의 글을 가장 우수한 글로 재평가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쳐서는 더욱 성황을 이루어 小華(小中華)라 일컬었으며 예부터 六藝之文(六經의 글)을 송상하여 文明之治를 이루고 鴻匠·鉅手 및 偉詞·大筆이 계속하여 배출되었으니 이는 모두 聖賢의 책에 攻力하고 荻粟之文에 專心하여 써 훗날에 전하는 자본으로 삼고 세상에 쓸 도구로 삼았으니 옛날에 이른바 皇猷(임금의 길, 임금의 계책)를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말이나 至象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이 오직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sup>(26)</sup>

하였다. 즉 기존의 朝鮮文化에 대하여 小中華로 자긍하고 六藝之文(六經의 글), 荻粟之文(평담하고 쉬운 글)에 힘써서 찬란한 文風을 이루었음을 자부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挽近이래 文風이 점차 쇠퇴하여 무릇 폐단이 일고 詩書禮樂의 글을 弊髦(쓸모없는 것)로 치부한 지 이미 오래고 稗官奇僻의 책이 沈淹하여 바탕이 되니 操觚之士(문장가)가 특히 많은 것은 아니로되 글을 쓰는 體는 사람마다 각기 달라서 거의 사람의 얼굴이 같지 않은 것과 같으니 만약 元氣로 논하자면 純한 者와 駁한 者, 厚한 者와 薄한 者가 분연히 함께 나오고 만약 品格으로 논하자면 雅者와 俗者, 奇者와 謊者가 섞여져서 무리지어 지껄이게 되니 그것이 발하여 詩文이 됨에 미쳐서는 駢儷之作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이른바 六經之文은 다만 畵葫에 그치거나 束閣(집에 둑어 둑)에 그치는 물건이 아닙니다.<sup>(27)</sup>

라고 단정하고 文風타락의 원인을 偏邦이기 때문이라거나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世道가 타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歷史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으며

하물며 우리 聖上(즉 정조를 일컬음)의 教導之術이 容極(최선을 다함)하지 않은 게 없고 課程之法을 찬연하게 남김 없이 들었으니 文臣이라면 課試나 親試가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깨우치며 章甫(儒生)라면 月講·旬題가 있어서 인재를 키우고 장려하는 신기한 변화를 이룩하여 文體가 雜謠한 것은 배척하고 내치고 文氣가 시들고 병든 것은 키워주고 심어 주었고 筵臣을 인접하여 文體를 변화시킬 방도를 여러번 강론하였으며 은근하고 간절한 가르침이 매양 조정안에 발하였은즉 풀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늙는 이치가 상식인데 효과를 이를 것이 막연함은 또 무슨 까닭입니다?<sup>(28)</sup>

하고 반문하고 있다. 즉 정조는 인재 양성의 방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여 抄啓文臣에게는 課

(26) 上揭書「逮至我朝 尤有盛焉 號稱小華 而自古尙六藝之文 運際河清 而一世固文明之治 鴻匠鉅手 接武於鳶魚之化 偉詞大筆 輳喚於冠珮之列 此皆功力於聖賢之書 而專心於荻粟之文 以之而爲傳後之資 以之而爲需世之具 古所謂 雜謠皇猷 實飾至象者 實在於斯矣」

(27) 上揭書「挽近以來 文風漸衰 衆弊俱興 詩書禮樂之文 弊髦已久 稗官奇僻之書 沈淹有素 操觚之士 不特千百 而爲文之體 人人各異 殆若人面之不同 而若論以元氣 則純者駁者厚者薄者 焚然而并出 若論以品格 則雅者俗者奇者謠者 雜然而群噪 及其發以爲詩文 駢儷之作也……夫所謂六經之文 不獨畵葫而止耳 不獨束閣而止耳」。

(28) 上揭書「況我聖上教導之術 靡不容極 課程之法 燥然畢舉 文臣則有課試親試 不倦之教誨 章甫則有 月講旬題 陶甄之神化 文體之佐謠者 斥之黜之 文氣之萎蕭者 培之植之 又於筵臣之引接累講 變文體之道 懇懃懇惻之教 每發於中朝 則草尙之風 必偃 理之常也 成效之邈然 又何故歟」。

試나 親試를 행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教誨하고 儒生(즉 成均館 儒生)들에게는 月講·旬題의 제도로서 도야시키어 일일이 文體를 바로잡아 주고 경연때에는 筵臣에게 나아가 조정에서도 매양 文體를 고치는 방책을 강구하고 일깨워 주었으므로 효과가 막연한 사태는 딴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무릇 지금의 선비된 자가 반딧불아래 읽는 것은 무슨 책이며 소리내어 읽는데 講하는 바는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그 방을 살펴 보면 책상앞에 쌓여 있는 것은 모두 이 華人(중국사람)의 近體의 글이요, 책상위에서 강구하는 것은 清儒(청나라 선비)의 奇異함에 힘쓰는 說이며 六經之書나 秦漢之文에 이르러서는 대개 그것이 무슨 물건인지 알지 못합니다. 대개 저 中華의 近體之文이라면 氣像의 姦靡함(느리고 활기가 없음), 調格의 嗟歎함(새의 지저귐 같은 잡스러움)은 이미 말할 나위도 없고 그 體가 되는 것이 한결같지 않아서……백조를 세긴다는 게 집오리와 흡사해지는 것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즉 오늘날의 文弊는 즉 清儒가 그르친 것이며 華書(중국책)가 어지럽힌 것입니다.<sup>(29)</sup>

라고 하여 正祖가 우려하는 바 文弊의 원인이 청나라 선비들의 신기한 것을 쓰는 글인 華書, 즉 稿官奇書 때문이라는 결론이며 따라서 六經이나 秦漢의 글 등 순연한 古文에 어둡기 때문이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원칙론을 전개하여

의논하는 이가 이르기를今日의 文弊를 바로 잡으려 하면 華人之書(중국책)를 모두 불태우느니만 못하고 나아가 燕肆之購(중국에서 책을 사들여 음)를 금하느니만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조치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 선비가 華書(중국책)에 혹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어찌 華書의 죄이겠습니까? 특히 東人이 文章之理를 밝힐 수 없고 文章之氣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릇 文章이란 반드시 理가 있으니 理가 없다면 글이 되지 못하며 文章에는 또한 반드시 氣가 있으니 氣가 없다면 글이 성립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금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理와 氣가 文體의 至要한 것임을 알게 하면 비록 날마다 채찍질하여 권해도 결코 華人의 글은 한 줄도 읽지 않을 것인데 어찌 번거롭게 태워라 금하라 할 일이 있겠습니까?<sup>(30)</sup>

하고 반문하고 있다. 文弊가 清儒나 華書에 기인한다고 파악하면서도 焚書내지 禁書 등 물리적인 억압조치보다는 근본적인 구폐책으로 우리나라 사람 자신이 文章의 기본인 理와 氣를 터득하여 스스로 미혹하지 않도록 자신의 수양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主司之臣(시협관)으로 하여금 取舍之際에 반드시 理勝하고 氣到한 글을 취하고 斷爛(툭툭 끊어지고 난만한 문장)·牽合(끌어 부침)한 글은 내쳐 버려서 士子로

(29) 上揭書「夫今之爲士者 蛻囊之下 所讀者何書 烏聲之求 所講者何義 竊觀其室 則案前堆積 括是華人近體之文 席上講究 無非清儒務奇之說 而至於六經之書 秦漢之文 繢不知爲何物也 盖彼中華近體之文 則其氣像之姦靡 調格之嗟歎 已無可言 而其所謂體不一……而俱未免爲刻鶴類鷺者也……然則今之文弊 即清儒誤之也 即華書亂之也」.

(30) 上揭書「議者曰 欲掠今日之文弊 則莫如盡焚華人之書 更禁燕肆之購 臣則曰此猶未也 今夫士之惑華書而不返者 是豈華書之罪歟 特東人不能明文章之理也 東人不能辨文章之氣也 夫文章必有理焉 無理則不成文矣 文章必有氣焉 無氣則不成文矣……苟使今之人 先知理與氣 爲文體之至要 則雖日撻而勸之 決不讀華人一行文矣 亦何煩於焚之禁之乎」.

하여금 모두 六經만이 본받을 바라는 것을 알게 하고 華書의 流毒을 알게 하면 文體의 不變은 날로 단로 해야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sup>(31)</sup>

마지막으로 沈晉賢의 對策文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신이 일찌기 醫經의 말을 들었사온데 이르기를 文章이 너무 성하면 역시 천지의 하나의 병이니 대개 이미 성했다고 해서 또 무엇이 병이 되랴 싶지만 또란꽃도 꽃봉오리가 터져 난만하면 시들기 마련인즉 무릇 教導之際에 오직 浮華한 것을 자르고根本을 기르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 文體로 하여금 날마다 淳한 데로 돌아가게 하고 화려한 문장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연후에 雄渾之味를 항상 여유있게 하면 나라의 운명의 운세가 오래가기를 꽂피기 전의 봄과 같고 달이 차기 전의 밤과 같을 것이므로 어찌 빛나지 않으며 어찌 성하지 않겠습니까?<sup>(32)</sup>

그는 文體나 文風내지 文化를 꽃에 비유하여 화려하게 만개하여 극성한 후의 조락을 염려하여 「絕浮華 培根本」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1789년 위의 文體 策問이 親試에 출제되었을 때 당시 선발되어 교육받던 모든 抄啓文臣들이 對策文을 썼을 터인데 그들의 작품집인 《奎華名選》에 유일하게 위의 沈晉賢의 것만이 실려 있다는 사실은 주의를 요한다. 《奎華名選》이란 책자는 1792년 정조가 그들 抄啓文臣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간행한 것으로 그 편찬이나 작품의 선택과정에 정조자신이 직접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沈晉賢의 對策文이 정조가 의도하였던 바 文體의 掣弊策에 상당히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정조자신이 평소에 西學에 대한 언급에도 나타나듯이<sup>(33)</sup> 모든 掣弊策은 의부의 물리적이거나 강압적인 조치보다는 근본 자체내지 근본적인 사상이나 학문이 제구실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상기한 沈晉賢의 對策文이 같은 인식을 보임으로서 그의 의도에 합치점을 얻은 것이다. 더구나 그 근본적인 학문내지 文章의 근본을 六經에서 찾으려한 점드 꾀차간에 꼭 맞아 떨어지고 있다.

위의 沈晉賢의 對策文 이외에 같은 策問에 대한 對策文으로 南人 實學派의 침대성자로 평가되고 있는 丁若鏞(호 茶山, 1762~1831)의 것과 北學派로 박지원의 제자였던 李書九(호 楊齋, 1754~1825)의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각자의 文集속에 들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간단한 검토를 통하여 두학파간의 文體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찾아 보는 것도 무의미한 작업은 아닐 것이다.

정약용은 策問을 몇 개의項目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對策文을 쓰고 있다. 그 역시 秩官雜書로 속칭되던 중국의 서적과 大小詞命에 쓰이는 文體인 駢儷體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판

(31) 上揭書「伏願殿下先飭主司之臣 每於取舍之際 必取理勝氣到之文 雖去斷爛牽合之體 使士子咸知六經之可法 而華書之流毒 則文體之不變 可以日月計也。」

(32) 上揭書「臣嘗聞醫經之言 曰文章太盛 亦是天地之一病 夫既盛也 又何爲而病也 盖如牡丹以落蕊爲盛 而以爛漫爲衰也 然則凡於教導之際 惟以絕浮華培根本 爲急先務 使文體日返於淳 而勿求爲煥爛之章 然後雄渾之味 常有餘 而國家文明之運 長如花未開之春 月未圓之夜矣 豈不休哉 豈不盛哉。」

(33) 《弘齋全書》卷165 日得錄 文學 5. 「邪學之橫流 亦由於正學之不明 明正學 莫先於尊朱子」

하고 있다.

稗官小品의 폐단과大小詞命의 작품에 대해서는 신도 평소에 가만히 생각한 바가 있으므로 감해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에는 天災, 地災가 있지만 稗官雜書는 人災 중에서도 큰 것으로 淫詞와 醜  
話는 사랑의 心靈을 피곤하고 방탕하게 하며 邪情과 魅跡은 사람의 智識을 미혹하며 荒誕하고 怪詭  
한 이야기는 사람의 교만한 기운을 초래하고 麻曼(살결이 굽고 아름다움)·破碎(조각조각 깨어져 부  
스러짐)의 문장은 사람의 壯氣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子弟들이 이것을 업으로 하면 經史의 공부를  
쓸모 없는 둘전으로 삼고 宰相이 이것을 업으로 하면 廟堂을 역시 쓸 데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婦女  
가 이를 업으로 삼으면 길쌈의 공을 드디어 폐지하는 지경에 이르므로 천지간에 이보다 더 심한 재  
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sup>(34)</sup>

그러므로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금부터 나라안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책들을 모두 모아서 불태우고 연경(淸)의 저자에서 사오는  
자는 重律로서 다스린다면 邪說이 거의 없어지고 文體는 한번 멀칠 것입니다. <sup>(35)</sup>

하여 焚書나 禁書 등의 강경조치를 주장하여 앞서 살펴 본 沈晉賢의 주장보다 한층 강드  
가 높다.

詞命에 駢儷를 쓰는 일은 오래지 않았으나 事大와 交隣은 이미 式例가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갑자  
기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신이 가만히 보건대 唐·宋간의 駢儷文은 平仄 사이에 하나같이 律詩  
의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근일에도 역시 이러한 體가 있어서 湖堂의 月課에는 혹은 이것으로 응한  
자가 있어 일컬어 律表라고 하는 바 실은 중국의 駢儷文에는 옛날에도 없고 지금에도 없는 것이 본래  
이와 같은데 平仄에 대해서 않은 것은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으니 이 역시 僻陋의 一端입니다. 신이  
일찌기 燕京에 보내는 賀表·賀箋 등 문자를 보니 일일이 모두 그러하니 우리나라의 表箋文이 그들에  
게 웃음거리가 될 것은 펠연의 사실이므로 어찌 심히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부터  
이들 文字는 하나같이 律表로 정식을 삼고 나라안에 소용되는 頒敎頒赦 등에 이 법을 쓰면 역시  
바르게 변화시키는 一端이 될 것입니다. <sup>(36)</sup>

즉 事大·交隣 등 詞命에 쓰이는 문체인 駢儷體 역시 文體 타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는 우리나라에 와서 변질되어 僻陋함을 드러낸 것으로 이를 바로잡아 원래의 駢儷體로 되  
돌아 가서 맡은 바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李書九는 바로 당대의 時文으로 文體反正의 對象이 되었던 新體文을 구사한 北學派의 한

(34) 《與猶堂全書》 제 1 瑤 卷8 文體策 (己酉十一月 親試) 「稗家小品之弊 大小詞命之作 臣於平日竊有所慨然者 故不敢隱也 臣以爲藝李虹鑑 謂之天灾 旱澇崩潰 謂之地灾 稗官雜書 是人災之大者也 淫詞醜話 駢蕩人之心靈 邪情魅跡 迷惑人之智識 荒誕怪詭之談 以鶴人之驕氣 麻曼破碎之章 以消人之壯氣 子弟業此 而色離經史之工 宰相業此 而弁髦廟堂之事 婦女業此 而織紝紝之功 遂廢矣 天地間灾害 勢甚於此。」

(35) 上揭書「臣謂始自今國中所行 悉聚而焚之 燕市貿來者 斷以重律 則庶乎邪說少熄 而文體一振矣。」

(36) 上揭書「噫 詞命之用駢儷 非吉也 雖然 事大交隣已成 式例今不可猝變 但臣竊觀唐宋間儷文 平仄相間 一如律詩之法 至我朝近日 亦有此體 湖堂月課 惑有以此應者 謂之律表 實中國儷文 無古無今 本來如此 不拘平仄者 惟我東有之 此亦僻陋之一端 臣嘗觀燕京賀表賀箋等文字 一一皆然 我國表箋之見笑於彼人必矣 不亦可恥之甚乎 臣謂始自今此等文字 一以律表爲式 而國中所用頒敎頒赦等文 亦用此法 則亦爲正訛之一端矣。」

사람으로 그가 개진한 바 文體에 대한 글은 다음과 같다.

가만히 근일의 글을 보건대 대개 그 격정할 바는 두 가지고 격정할 필요가 없는 것도 역시 두 가지니 文氣가 쇠약한 것은 격정할 필요가 없고 事實을 충분히 기록하지 못하는 것을 격정할 일이고. 文風이 委靡(시들어짐)함을 격정할 게 아니라 義理가 밝혀지지 않는 것을 격정할 일입니다.<sup>(37)</sup>

위와 같은 전제위에서 三代이전의 찬란한 文化를 이상으로 묘사하고 그 때의 글인 六經之文을 현창하는 동시에

文體의 높고 낮음은 오로지 世道의 汚隆에서 말미암지만 世道의 污隆은 文體의 高下에 관계가 없으므로 전하게서 오늘날 격정하실 바는 역시 마땅히 여기에 있지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sup>(38)</sup>

고 하여 文體가 世道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 世道가 文體에 따라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治者가 격정할 일은 世道이지 文體는 아니라는 간접적인 시사이다.

이른바 振作之術을 같고 닦으려면 言語로서 하는 것은 불가하며 刑法으로 바로잡는 것도 불가하니 반드시 먼저 나에게 있는 것을 닦아 功業이 生民에게 나타나고 道學이 당세에 밝게 하면 비록 雅頌으로 하여금 흥하지 못하게 하려 하고 典謨를 짓지 않아도 오히려 왕성해질 것입니다.……그 글의 正邪는 時代의 先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世運의 興衰에 달려 있는 것을 대개 알 수 있습니다.<sup>(39)</sup>

즉 앞서 沈晉賢의 주장과 같은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宮體俳體가 이에 지어졌는데 그것이 바삐 쫓아서 다투어 달려가서 心力を 다하여 구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文人으로써 하려는 것이니 體裁의 眞偽나 辭理의 當否는 진실로 깊이 논하기에는 미흡합니다.<sup>(40)</sup>

하면서 宮體·俳體 따위는 논란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하물며 오늘날의 인재가 力量을 갖추고 무릇 楊廷秀(1184~1266 南宋의 學者詩人)·李攀龍(明의 文人) 등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別蹊(특별한 길)를 모방하고자 하여 異體를 附開함으로써 일시의 耳目을 새롭게 하였을즉 이는 별이 대낮에 나타나고 오얏꽃이 겨울에 핀 것과 같아서 신기하고 기뻐할 일이 아닌 바 아닌데 이를 보는 자 일컬어 災라 하고 祥이라 하지 않으며 전하게서도 경연에 나아가서 한탄을 하여 여러번 경계하시면서 반드시 폐단을 고치고 더러운 것을 革去하려고 하시는데 신이 어리석게도 죽을 죄를 지었지만 전하게서는 當世之士를 나무라시지 말고 먼저 스스로 돌이킬 방

(37) 《傷齋集》(규장각 고도서) 3冊 卷7 文體策 「窃嘗觀夫近日之文 盖其可憂者二 其不必憂者亦二 文氣之衰弱 不必憂 而事實之無足記 爲可憂也 文風之委靡 不必憂 而義理之不能明 爲可憂」。

(38) 上揭書「文體之高下 專由於世道之污隆 世道之污隆 不係於文體之高下 而殿下今日之所當憂者 亦宜在此 而不在彼矣」。

(39) 上揭書「其所以磨礪振作之術 不可以言語而化之也 刑法而格之也 必也先修其在我者 功業著於生民 道學明於當世 則雖欲使雅頌不興 典謨無作 猶夫天地之發育萬象 故之以雷霆… 其文之或正或邪 不拘乎時代之先後 實在於世運之興衰者 條可知已」。

(40) 上揭書「宮體俳體 於是乎作焉 彼所以紛趨競馳 竭心力而求之者 只欲以一文人自命 則體裁之眞偽 辭理之當否 固未足以深論也」。

도를 생각하십시오. <sup>(41)</sup>

위에서 今世之土가 異體를 創開하였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스승인 박지원(호 燕岩, 1737~1805)의 新體文을 지칭했을 것이며 이는 칭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正祖가 경사스럽게 여기지 않고 재앙으로 여겨 煩弊하려고 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니 君王에 대한 臣下의 발언으로서는 상당히 강경한 언사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工師로 하여금 宮室을 짓게 하자면 먼저 그 制度를 정하고 먼저 그 材具를 모아서 안으로는 堂을 삼고 드러내어 軒을 삼고 높이 솟게 하여 樓를 삼고 굽으려서 난간을 만들고자 하는 구도가 心目에 요연하게 떠오른 연후에 재목 기와 등 전축재를 실어 날라 모두 갖춘 연후에 비로소 좋은 宮室의 閣이나 殿이 이룩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비록 광장한 기술자의 기술로도 한 구비의 집도 짓을 수 없는 것이온데 글을 짓는 방법도 역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즉 글의 制度는 理義라 말할 수 있고 글의 材具는 事實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理義가 이미 밝혀지고 事實이 이미 아름다우면 비록 글이 글되지 않으려 해도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sup>(42)</sup>

하여 목수가 집을 짓을 때의 制度 즉 설계에 해당하는 것이 文章을 짓는 데 있어서는 理義이고 材具 즉 건축자재에 해당하는 것이 文章에 있어서 事實로 비정하고

하물며 자잘하고 보잘것없는 인재로 하여금 古道를 만회하고 正聲을 펴게 하며 昭代의 文風을 혁신케 하려 하면 또한 어찌 制度를 정하지 않고 材具도 모으지 않고 工師의 기술만을 나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sup>(43)</sup>

하고 반문하고 나서

진실로 원컨대 전하께서는 먼저 그 있는 것을 닦으시고 文體가 아직 醇正하지 못함을 걱정하실 일이 아니며 世道가 아직 융성하지 못함을 염려하시고 더욱 聖學에 힘쓰십시오. <sup>(44)</sup>

하여 世道나 걱정할 일이지 文風을 걱정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위의 두 사람에 비하여 상당히 뼈있는 반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臣聞人才少全而多偏 文章貴簡而賤繁」이라는 <sup>(45)</sup> 전제를 하고

한 사람의 有限한 才智로서 六經을 모두 익히게 하고 곁들여 百家(제자 빼가)에 통달케 하고 거칠

(41) 上揭書「況以今世之人才 具力量 觀諸楊李諸人 不啼黃鸝之於壤兔 而乃欲依傍別蹊 摶開異體 以新一時之耳目 則是猶星辰之晝見 桃李之多華 非不新奇可喜 見之者 謂之災 而不謂之祥 此殿下所以臨筵發歎屢勤勉戒 必欲矯弊 而革陋者也 然臣愚死罪 願殿下母責於當世之士 先思所以自反之道也。」

(42) 上揭書「何則今夫人之使工師爲宮室也 必先定其制度 先聚其材具 凡所以奧而爲堂 故而爲軒 簽而爲樓 紙而爲欄者 瞭然於心目 然後輸之以梗楠 豫樟之木 以至領甓之具 丹漆之用 瓏不畢備 則凌雲之閣 鏗光之殿 庶可指顧而成矣 不然 雖有工倕之巧 匠石之技 不能就一區之屋 爲文之道 亦猶是焉何謂文之制度曰理義是也 何謂文之材具曰事實是也 是故 理義既明 實事既美 則雖欲文之不文 不可得也。」

(43) 上揭書「況欲使區區綿薄之才 挽回古道 發舒正聲 丕變昭代之文風 則又何異於不定制度 不聚材具 而責工師之巧者也。」

(44) 上揭書「誠願殿下 先修其在者 勿以文體之未醇爲憂 惟以世道之未隆爲念 益勉聖學。」

(45) 上揭書

게 섭렵하고 많은 것을 탐내어 얻기에 힘쓰니 그 실은 하나의 경전에도 통달하지 못하고 應舉之文(科舉文)을 또한 程式으로 삼고 摂拾(주워 모음)에 얹대어 전부한 것만 모아 나열하니 때문에 종이를 잊대어 여러장을 써서 도도하게 그침이 없이 써놓아도 마지막편까지 읽어 보아도 망연하여 알 수 없는 바 房玄齡(578~648, 唐의 政治家)이 이론 바 옛날의 글은 約而達인데 오늘날의 글은 繁而塞한다고 한 것이 불행하게도 맞아 떨어집니다.<sup>(46)</sup>

하였다. 이 발언 역시 당시 정조가 추진하면 文風振興策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六經을 근본으로 하여 제자백가를 보조로 삼아야 한다는 정조의 주장을<sup>(47)</sup> 비판하여 그러한 광범위한 학문태도로 인하여 오히려 한 가지에도 달통하지 못하는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經術이 어찌 蔑裂하지 않으며 文體가 어찌 卑下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엄히 금단의 조치를 세우시고 옛 규율을 혁파하여 專門之科를 설치하시고 程式之文을 버리시어 眞才 實學만을 취하시면 俊異한 鴻博之士가 스스로 나타날 수 있으며 반드시 文風을 변화시키는 데 一助가 될 것입니다.<sup>(48)</sup>

이상에서 北學派의 핵심 맴버이며 19세기에 와서 큰 활약을 한 李書九의 對策文을概觀하였다. 앞서 두사람 沈晉賢과 丁若鏞의 對策文에 비하여 문제의 핵심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으며 정조의 의도에 대해서도 자신의 비판을 비교적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다.

어쨌던 위의 對策文은 親試의 策問에 대한 對策文으로 피차간에 公的인 입장에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당시 文體政策의 핵심을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최소한 現存하는 기록에 나타나 있는 言明을 검토하여 본 데 불과한 것이다. 위의 丁若鏞의 대책문에

臣은 陶鑄중의 한사람으로 聖人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두고 정성껏 지키며 인재를 배양하여 출겁게 기르시려는 뜻에 기쁘게 답하고자 하지 않은 바 없으나 흥로 文詞를 導率하시는 방법에는 小人們의 의심이 없을 수 없읍니다.<sup>(49)</sup>

고 序頭에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文體 문제는 文體 그 자체 이상의 다른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 틀림 없다.

正祖가 친히 지은 親試의 策問은 아니지만 抄啓文臣에게 부여한 課試의 策題로 낸 또 하나의 文體 策問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요청되지만 본 연구의 성격상 생략하고 後考로 미루겠다.

(46) 上揭書「以一人有限之才智 欲使盡習六經 旁通百家 囗弗涉獵 貪多務得 而其實則未通一經 至於應舉之文 又爲程式 所拘攝拾 陳腐排攢 故實聯紙累牘 滔滔不休 而讀之終篇 茫然不知 所謂房玄齡所云 古之文也 約而達 今之文也 繁而塞者 不幸而近之矣」。

(47) 《弘齋全書》卷161 日得錄 文學 1. 「爲文之道 當本之六經 以立其綱翼 以諸子以極其趣 灌之以義理 發之以英華」。

(48) 註(46) 문장에 이어 「如此而經術安得不蔑裂 文體安得不卑下乎 亦頗駁下 嚴立條禁 痛革舊規 設專門之科 去程式之文 惟眞才實學之是取 則俊異鴻博之士 可以自見 而未必不爲變文風之一助矣」。

(49) 《與猶堂全書》1冊 卷8 文體策 「臣陶鑄中一物耳 於聖人之教 未嘗不拳拳服膺 無所不悅 翩以答菁莪樂育之念 而獨於文詞導率之方 不能無小人之疑」。

## 2. 抄啓文臣의 作品集 : 奎華名選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抄啓文臣은 40세미만의 年少한 文臣으로 품계 역시 參外에 해당되는 신진들이었다. 이들은 아직 완전한 자기 틀에 고착되기 이전의 비교적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령층이었다. 정조는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 抄啓文臣의 이름으로 뽑힌 연소한 文臣들과 그 전 단계인 成均館 儒生들의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 확보와 文化政策의 기틀을 확고히 하려 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教科 내용인 課講・課題에 대한 관심을 갖고 講의 條問을 직접 만드는 등의 열의를 보였다.

1781년 최초로 抄啓文臣을 선발하여 교육시키기 시작한 지 10여년후인 1792년(정조 16)에 이르러 그들 抄啓文臣들을 격려하고 그 결실을 정리하여 볼 필요에서 정리한 작품집이 『奎華名選』으로 나타난다. 즉 제 1회인 1781년 辛丑選 초계문신 15사람의 작품을 1인 1권씩 배정하여 15권에 부록 1권을 포함시켜 16권 3책으로 편집하고 제 2회인 1783년 癸卯選 초계문신 16사람의 것을 16권으로 편집, 여기에 부록 1권을 합하여 17권 3책으로 편집한 것이 현재 남아 있다. 각 권은 文體(詩・表・箋・條對・銘・制・論・策)별로 편집하여 芸閣活字로 간행하였다.

1792년이라면 이미 8회의 초계문신이 진행되어 연인원 94명이 교육을 받았거나 교육중이었다.<sup>(50)</sup> 이들 가운데서 1회와 3회 즉 辛丑選와 癸卯選의 抄啓文臣들 31명의 作品集만 우선 간행한 것이다. 이들은 이미 교육과정을 끝내었고 처음에 의도하였던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되어 共同의 作品集으로 그 결실을 수렴시킨 것이라.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 그들 상호간의 結集의식을 높여주고 士氣를 진작시키는 이외에 後進의 抄啓文臣들에게 자극과 면례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奎章閣 자체의 설치목적 중 가장 큰 것이 人材를 모으는 작업이었음을 감안할 때 既成人들은 閣臣과 檢書官에 임용하여 포섭하고 年少한 文臣들의 수령장치로 抄啓文臣제가 강구된 것이다. 이들 초계문신들의 초선당시의 나이는 최하 22세부터 최고 37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기간이 法制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육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3년 정도는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40세까지의 抄啓文臣들이 양성되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아무개는 이미 40세가 되었으므로 抄啓文臣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28세때인 1789년에 제 6회 抄啓文臣에 뽑힌 丁若鏞도 스스로 「臣은 陶鑄 중의 一物입니다.」하고<sup>(51)</sup> 언명하고 있다.

原任 奎章閣 直提學으로 右議政의 자리에 있던 金憲는 『奎華名選』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우선 奎章閣의 유래와 抄啓文臣제가 湖堂 즉 讀書堂에 있다는

(50) 前揭 拙稿 〈奎章閣 抄啓文臣研究〉 pp.30-1 抄啓文臣一覽表 參照.

(51) 註(49)와 같음.

### 등 연혁을 밝히고

특히 年少文臣 중 文學이 있는 사람을 뽑아 그로 하여금 經典을 강론케 하고 文辭를 익히게 하며 考課之法과 賞罰之規가 찬연하게 모두 갖추어져 대개 周文 緝熙(여화의 밝은 빛이 빛남)의 工으로써 列朝의 右文之治를 추구하고 더욱 培養의 방법을 다하여 作成之化를 펴 천명하여 一世로 하여금 모두 文明之域으로 둘러싸게 하려는 大聖人의 하시고자 하는 바가 참으로 아름답지 아니한가? 용성하도다.<sup>(52)</sup>

### 하고 정조의 人材養成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뽑힌 이들은 振勵・興起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講하면 반드시 그 깊은 뜻을 해아려 記誦(文辭의 깊은 뜻에 천착하지 않고 입으로만 출출 암송함)의 습벽을 부끄러워 하며 製하면 반드시 그 正範을 따라 雕繪之辭(깍고 다듬고 그리는 글)를 힘써 제거하였다.<sup>(53)</sup>

### 고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辛丑(1781년) 이후 지금(1792년)까지 계울리하지 않고 더욱 근면히 하여 條對之人은 거연히 經術士가 되고 應製之文 역시 모두 찬란하게 번성하여 볼 만하게 되었으니 奎華名選이 이루어지게 된 연유이다.<sup>(54)</sup>

### 라고 하여 《奎華名選》의 찬란한 결실이 이루어지게 된 근원을 밝히고 있다.

聖朝(즉 正祖)의 文教가 여기에서 쌓았으니 지금 16권으로 편성되었는데 어찌 對揚鴻休(君名을 받들어 그 뜻을 일반에게 알림)・策礪來後(後進을 격려함)의 방책이 아니겠는가.<sup>(55)</sup>

하여 正祖의 文教政策의 시발이 바로 이들 최초의 抄啓文臣에 있으며 자신의 뜻을 천명하여 일반에게 알리고 다음에 오는 인재를 장려하는 방책으로 강구된 것이 抄啓文臣制度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正祖가 초기의 급박했던 정치상황을 수습하고 규장각을 政治色을 표백시키고 文化機關으로 전환시키면서 인재 양성의 방편으로 최초로 강구한 조치가 抄啓文臣制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奎華名選》의 卷首는 우선 設置絲綸으로 시작된다. 이는 抄啓文臣의 설치를 명한 1781년 2월 17일의 教書를 전재한 것이다. 그 다음의 抄啓座目에는 同年 2월 18일 자로 뽑힌 초계문신 20인의 명단과 관직 등을 작성하여 놓았다. 그 다음의 講製程式은 文臣講製節目내지 奎章閣志 教習條를 간추려 요약한 내용이다.

(52) 《奎華名選》1. 辛丑選 1. 序文「特選年少文臣之有文學者 使之講經典 而肄文辭 考課之法 賞罰之規 燦然畢具 盖以周文緝熙之工 追列朝右文之治 益盡培養之方 申闡作成之化 期使一世咸固文明之域 大聖人所作爲猗歟 盛哉」。

(53) 上揭書「於是 凡在被選之中者 莫不振勵興起 講則必瀨其奧旨 而恥爲記誦之習 製則必循其正範 而務祛雕繪之辭」。

(54) 上揭書「自辛丑至于今 而不懈益勤 前後條對之人 居然爲經術士 而應製之文 亦皆彬郁而可觀 此奎華名選之所由作也」。

(55) 上揭書「聖祖文教 權輿於此 則今茲十六卷之編成 豈非對揚鴻休 策礪來後之道也耶」。

이상의 設置絲綸·抄啓座目·講製程式에 의해 抄啓文臣制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한 사람에게 1권씩 배정된 내용중 詩·表·詔·論·箋·銘 등이 製에 속한다면 條對는 講에 속한다. 條對는 七書(論·孟·庸·學·詩·書·易)의 중요 항목을 재해석하는 작업으로서 正祖 자신이 七書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몸소 條問을 낸 데 대해 초계문신들이 대답하는 형식이다. 그는 꼭 같은 경전의 같은 항목일지라도 항상 새롭게 접근하여 당대의 제반 관심사에 연관시키어 條問을 하고 있으니 초계문신들의 條對 또한 항상 새로운 재해석을 시도하게 되는 것은 필연의 사실이다.

이들 초계문신들의 작품중에서 특히 讀書堂에 대한 銘이 여러편 보이는데 이는 경조가 의도적으로 초계문신들이 기존의 讀書堂을 계승하는 막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시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제 1회 辛丑選 奎華名選의 卷末에는 계속 세번 居首하여陞資된 李時秀와 洪仁浩의 謝箋을 실어 그들 성적우수자를 표창한 사실도 명시해 놓고 있다. 1783년 제 2회 癸卯選 초계문신들의 작품집인 두번째의 《奎華名選》의 序文은 時任 奎章閣 檢校이며 直提學인 李秉模의 글인데 그는 다음과 같이 초계문신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피력하고 있다.

나라에서는 右文을 다스림으로 삼아 무릇 인재를 키우고 양성하는 방책을 극진히 하지 않은 바 없으니 月課가 있고 專經講이 있으며 文臣製述이며 湖堂 賦暇之選이 있어서 規撫·製作함이 찬란하니 어찌 진실로 아름다움을 다하지 않으며 또한 착함을 다하지 않으리오.<sup>(56)</sup>

즉 조선왕조가 右文之治를 치세의 원칙으로 삼아 여러가지 진작의 제도를 실시하여 그 효과가 상당히 성취되었으나

人情이 오래되면 익고 익으면 풀어지고 풀어지면 게을리지니 이는 법이 제대로 거행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势가 스스로 그렇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러한 것이다.<sup>(57)</sup>

고 하여 기존의 인재양성의 방책들이 세월이 감에 따라 탄력성을 잃고 타성에 젖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聖明(즉 正祖)께서 臨御하시자 文敎가 폐 천명되고 光廟故事(世祖)를 준수하여 우선 奎章閣을 건립하여 湖堂之選을 본받아 抄啓講製之法을 설치하여 舊章을 우러러 서술하고……사람이 바라보기 좋은 龍門이나(夏의 禹王의 치적이 있는 곳)瀛洲(東海안에 있다는 신선이 사는 곳, 三神山의 하나)같이 여기니 能한 사람은 더욱 힘쓰고 능하지 못한 사람도 절뚝대면서 거기에 미치고자 노력하는 면면의 풍조를 조성시켰다.<sup>(58)</sup>

(56) 《奎華名選》 4. 癸卯選 1. 「國朝右文爲治 凡所陶鑄儲養之具 罷不用極 有月課焉 有專經講焉 有文臣製述焉 有湖堂賤暇之選焉 規撫制作彬然郁然 豈不誠盡美矣 又盡善乎」.

(57) 上揭書「然人情久則狃 猥則弛 弛則惰 此非法之不擧 其勢自有所不期然而然也」.

(58) 上揭書「聖明臨御 申闡文敎 既遵光廟故事 首建奎章閣 倘湖堂之選 設抄啓講製之法 仰述舊章……人之望之 如龍門瀛洲 能者益勸 不能者跂而及之」.

즉 正祖가 「繼志述事」의 시정 방침에서 湖堂을 본받아 抄啓文臣제도를 실시하여 文教가 융성하여 「三代之治」나 仙人의 治를 방불케 하였다는 찬양이다. 따라서

士氣를 북돋고 해이해진 士風을 진작시켜 그 헤아림이 하나같으니 이 奎華名選이 말미암아 생겨난 바이며 宏詞·傑構가 이에서 극성하였다.<sup>(50)</sup>

고 평가하였다.

무릇 卷 중의 여러분이 후배를 이끌어 나가 이를 계승하는 것은 마땅히 여기에 뽑힌 사람이 勉力하느냐 勉力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고 또 文章과 事業은 본래 두 개가 아니라 文章이란 事業이 나타난 것이요, 事業이란 文章의 實이니 文章이 事業에서 갈려나와 다만 藻華나 雕繪의 말단에만 힘쓰면서 점점 그렇게 自足하는 자가 어찌 文章之觀에 함께 할 수 있는가?<sup>(60)</sup>

하여 抄啓文臣들의 막중한 임무를 강조하고 나서

이 책은 특히 이른 바 藻華·雕繪의 말단으로 아직 諸公에게 가볍고 무거움을 반드시 가리려는 것은 아니다.<sup>(61)</sup>

라고 하여 《奎華名選》이 의도했던 바에 완전히 흡족한 것은 아니고 화려하게 다듬어 그런 문장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아직 輕重을 따질 만한 단계는 아니므로 그대로 간행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卷末의 부록에는 1783년 癸卯選 抄啓文臣 중 親試의 都計劃에서 수석인 金啓洛, 동년 課試의 都計劃에서 수석인 李翼晉, 동년 課講 都計劃의 수석 成種仁 등과 1784년 都計劃에서 課試에 수석한 李崑秀, 課講에 수석한 申馥, 다음해 1785년 都計劃에서 親試에 수석인 金熙朝, 課試에 계속 세 번 수석인 尹行任, 다시 이듬해인 1786년 課試에 계속 세 번 수석한 李勉競, 課講에 역시 계속 세 번 수석인 姜世綸, 이로부터 3년후인 1789년 新舊選 春秋 親試에 계속 세 번 수석한 沈晉賢 등의 謝箋을 게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奎華名選》의 발간 사업이 계속되었는데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것인 지 1792년의 작업에 그쳤는지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이들의 作品集인 현존의 《奎華名選》을 검토함으로써 抄啓文臣에 대한 教育의 내용에 보다 밀접하게 접근하여 살펴 볼 수 있었다는 데에 이 책의 현존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 3. 抄啓文臣의 試券集 : 正始文程

《正始文程》은 1795년(정조 19) 4월 1일에 간행된 책으로 3卷 1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59) 上揭書「其所以鼓士氣 振弛情 其揆一也 此奎華名選之所由作 而宏詞傑構 於斯爲盛」。

(60) 上揭書「夫卷中諸公之引進後輩與繼此 膚是選者之勉力與不勉力也 且夫文章事業 本無二致 文章者 事業者文章之實 彼分事業 而徒勉勉於藻華雕繪之末 沾沾然自足者 何以與於文章之觀乎」

(61) 上揭書「是編也 特所謂藻華雕繪之末 而未必輕重於諸公也」

앞에 總敘가 있고 1卷에는 1792년(정조 16) 文體에 관한 본격적인 논쟁인 實錄의 기사(正祖 16년 11월 6일)로부터 시작해서 1795년까지의 연혁에 해당하는 부분이 序論으로 불어 있으며 이어서 1795년 4월에 행한 抄啓文臣 및 成均館 儒生에 대한 親試의 榜目이 실려 있다.

2卷에는 위의 榜目에 들어 있는 초계문신들의 試券이 表·賦·排律의 순서로 정리 수록되어 있다. 이 때의 試題는 漢高祖의 「意豁如也」로 3卷의 成均館 儒生들의 試券 역시 같은 試題이다. 위의 抄啓文臣들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적)	(관직)	(성명)	(출생년)	(초선년)
表二下	兵曹佐郎	崔光泰	甲子生	甲寅選
表三上	副司果	金熙華	乙酉生	壬子選
賦二中	"	申鳳朝	乙丑生	甲寅選
"	副司正	金熙周	庚辰生	"
" 二下	權知承文院副正字	曹錫中	癸未生	"
" 三上	"	黃基天	庚辰生	"
"	"	徐俊輔	"	"
"	副司果	金近淳	壬辰生	"
"	奉常寺參奉	趙萬元	壬午生	"
排律二下	副司果	嚴耆	"	庚戌選
"	權知承文院副正字	姜浚欽	戊子生	甲寅選
排律三上	"	柳遠鳴	庚辰生	"
"	副司果	鄭魯榮	辛巳生	庚戌選

이 책의 중요성은 總敘와 1卷의 序論에 해당하는 연혁 부분에 있는 바 특히 實錄記事와의 대조를 통하여 당시의 文體政策의 실상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우선 總敘에서

聖上이 御極하시자 文臣講製와 洋儒課試의 식을 首定하여 형한 지 20여년에 卿大夫로 文進者는 모두 여기 뽑힌 사람들이었다.<sup>(62)</sup>

고 전제하였고 그 의도는

대개 장차 千里之俗을 같게 하여 三古之治를 만회하려는 것이다.<sup>(63)</sup>

하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혹은 經常한 것을 싫어하고 巧靡한 것을 추구하며 傳奇 小品을 따르는 습벽이 그 사이에서 나와 文風이 점차 변하여 세상의 操觚者(文章家)는 왕왕 抄啓體로 불러 마치 옛날의 宮體·俳體와 같이 어기니 上께서 그 學을 금하고 그 文을 내쳐 筵席·絲綸에서 여러번 形言하신 지 또 몇년이 되었다.<sup>(64)</sup>

(62) 《正始文程》(규장각) 全 1 册 總敘「聖上御極 首定文臣講製 洋儒課試之式 行之二十年 卿大夫之以文進者 皆選中人也」.

(63) 上揭書「蓋將同千里之俗 挽三古之治」.

(64) 上揭書「或有厭經常 驚巧靡 傳奇小品之習 出於其間 而文風漸變 世之操觚者 往往稱抄啓體 如古之宮體俳體 上乃禁其學 黜其文 屢形於筵席絲綸者且有年」.

고 전제하고 이제 1795년 新·舊抄啓文臣의 合試를 親試로 행하고 보니 모든 작품이

雅馴하여 규격에 맞으며 전혀 塗澤(번질번질 바름, 걸치례)・鉤棘(鉤章棘句: 해득하기 어렵고 무척 까다롭게 된 문장) 한 말이 없으므로 上께서는 크게 상을 내려 이르기를 이는 진실로 治世의 소리이니 文體의 回淳함은 높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구나<sup>(65)</sup>

하면서 居魁文臣(즉 수석) 崔光泰에게는 知製敎를 제수하였고 居魁儒生 金履永에게는 文科及第의 영광을 주었으며 기타 文臣・儒生들에게도 시상하였다 한다.

宋나라 신하 穆脩와 尹洙가 처음으로 西崑體(唐나라 李商隱의 詩體를 본받아 故事를 나열하고 修辭에 유의하던 五代 및 宋初의 詩風)의 더러움을 씻고 歐陽脩가 이어 나왔다. 무릇 한 두 文人이 倡起함으로써一代의 耳目을 새로이 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大聖人(正祖)께서 선비를 기리고 높이 여기심이 이렇게 성하니 일변하여 道에 이르러서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sup>(66)</sup>

라는 결론에서 正祖의 文體反正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읽을 수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瓊林聞喜에서 쌌트고 三道賓興에 수집하고 나열하였으며 奎華名選에서 潤色하였는데 이 책(正始文程)은 더욱 크게 龍光을 입어 國家의 성함을 올렸으니 그 이름은 文苑의 正始요, 그 功은 韻舍(학교)의 章程이며 이로부터 표표하여 三百篇에 가당하니……우리나라 억만년 문명의 조짐을 열어 이제부터 시작이다.<sup>(67)</sup>

하고 결론을 맺었다. 위에서 《瓊林聞喜》・《三道賓興》・《奎華名選》・《正始文程》을 正祖의 文體政策의 결집물로 열거하였는데 《瓊林聞喜》는 1791년(正祖 15)부터 정리되기 시작하여 成均館 儒生들의 榜目 및 試券을 모아 놓은 것으로 《賓興錄》3冊 중 제 1책에 포함되어 있다.<sup>(68)</sup> 《三道賓興錄》은 嶺南(嶺南)・關東・耽羅 등 세 곳의 儒生들의 應製 榜目과 試券을 모은 것이다.

《正始文程》의 명칭에 대해서는 文苑의 正始(을바르게 시작함)요 韵舍(학교)의 章程이란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말하자면 文教의 모범으로 이 책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卷의 연혁에 해당되는 부분에 文體에 대한 최초의 長文의 教書가 인용되어 있는데<sup>(69)</sup> 이는 1792년(正祖 16년) 11월 6일 李東稷의 上疏文에 대한 教批이다. 李東稷은 少論으로 副校理의 직책에 있던 사람으로 文體論에 편승하여 南人 격파의 포문을 열었다. 즉 李家煥이

(65) 上揭書「雅訓合策 絶無塗澤鉤棘語 上大褒賞曰 此眞治世音也 文體之回淳 其從隗始歟」。

(66) 上揭書「宋臣穆脩尹洙 始洗西崑之陋 而歐陽氏繼作焉 夫以一二文人之倡起 而能新一代之耳目 而況大聖人譽髦斯土之盛 一變而至道者乎」。

(67) 上揭書「權輿於瓊林聞喜 審羅乎三道賓興 潤色乎奎華名選 而斯編尤大被龍光 鳴國家之盛 其名則文苑之正始 其功則韻舍之章程 由是而漸漸乎三百篇可也……啓我億萬年文明之兆 其自今伊始也」。

(68) 《賓興錄》은 규장각도서로 3冊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의 〈瓊林聞喜〉・〈三道賓興錄〉・〈正始文程〉이 모두 여기 合錄되어 있다.

(69) 《正祖實錄》卷36 정조 16년 11월 辛丑

蔡濟恭에게 의지하여 행동이 방자스럽기 그지없으며 그 學(問)은 異端·邪說에서 나왔고 그 文(章)은 오로지 稗官小品을 송상하여 經典이나 菩薩之文(쉽고 평담한 글)을 쓸모 없는 물건으로 여기므로 그를 文華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의 직책(成均館 大司成)을 깎아 世道가 名器를 중히 여기는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sup>(70)</sup>

正祖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먼저 李家煥의 일로 말하자면 이 게 옳은 일인가? 네가 李家煥의 文體가 經典을 쓸모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말머리를 삼았다마는 내가 한마디 하자면 나는 그런 짐새를 찾지 못했다. 네 말의 眞意는 가려운 데를 긁는 것과 같다.<sup>(71)</sup>

고 하여 이동직의 저의를 간파하였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으로

不拂其性 各適其器而已<sup>(72)</sup>

라 하여 人材를 適才適所에 등용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四色內之時·僻의 갈등을 상호 견제하면서 각기 그 特性에 따라 제자리에 등용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治道의 일단을 피력한 것이다. 이어서

而自有會極歸極之妙焉 譬之於天下之廣斯<sup>(73)</sup>

라 하는 부분이 實錄기사에는 빠져 있고 《正始文程》에만 보인다. 즉 勢利에 따라 이끌어가다 보면 스스로 會極·歸極의 妙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세상의 넓음에 비유하여 여기에 朱夫子(朱熹)가 있어 朱子 性理學의 역할을 다하고 저기에 陽明學이 있어 역시 그 나름의 역할을 다하며 그보다는 못하지만 역시 琐瑣稗品이 있어서 각기 小成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임을 깨우치고 있다. 이어서 다음의 기사 역시 實錄에는 누락된 것이다.

予於近日 欲聞治世之希音 首舉一二年少文臣 而撕警之者 南公轍之世掌絲綸 金祖淳之家傳詩禮 李相璜沈象奎之胄筵舊僚之子 濡染者 軒冕之作 誦習者 詞命之體也 俯就跛及 固各隨其才分 萬有一捨宋而適越 用夏而變夷 捷經睿步 貪鳥錯人 則其爲賊于敷文 恃厥先武 豈特无妄之小過 渠曹以崔盧赫闥 瞬焉之頃 當臥占國子大司成 弘藝文館提學矣 貢舉而誤多士 潤色而辱王言 是所謂朱絃下里 黃流瓦缶 而齎庠館閣之上 一任此輩 廝壞則有北之投 何足以贖乎<sup>(74)</sup>

正祖가 治世의 希音을 듣기 위하여 年少한 文臣 몇몇을 首擧하여 재교육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南公轍·金祖淳·李相璜·沈象奎로서 이들은 名門의子弟로 순식간에 大司成·大

(70) 上揭書 및 《正始文程》卷1. 壬子敎書

(71) 上 同

(72) 上 同

(73) 《正始文程》卷1 壬子 11월 初六日敎書.

(74) 上 同

提學에 올라 文衡을 잡을 인물이므로 그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지도·편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남공철·김조순·이상황·심상규 등을 文體 문  
제에 관련시켜 계속 자극을 주는 이유는 장래 그들이 말을 바 大任에 맞는 능력을 키워주  
기 위하여 단련시키는 방편이라는 해명이다. 그러나 다음의 조항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文  
體反正이란 결국 蕩平策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 老論 名家의 子弟들을  
회유시켜 時派로 형성시키는 과정으로 파악해야 될 것이다. 이 條文이 실록에 삭제되어 있  
는 이유는 그것이 편집될 때에 바로 이들이 그 편찬의 주역에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들에  
관련된 부분은 의도적으로 탈락시켜 은폐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리라.

다음엔 南人 李家煥에 대한 기사가 계속되는 바 實錄과 《正始文程》에 모두 같이 기재되  
어 있다. 그 역시 좋은 家門인데 100여년동안 낙척하여(南人를 락을 뜻함) 그 慷慨之辭를 離  
騷 九歌에 부쳐 假托한 것이며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것은 朝廷의 책임이지 이가환 자  
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언명하고 先王인 英祖가 기본 정책으로 들고 나온 蕡平策의 가치를  
선명히 부각시키면서 「蕩蕩平平室」이니 「庭衢八荒」이라는 蕡平의 표어를 상기시켰다.

여기에서 비로소 정조의 「文體反正」의 의도가 선명하게 제시되는 것이며 결국 蕡平策의  
추진이라는 일대 명제를 추진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장치로 「文體反正」의 가치를 높이 든 것  
이다. 이러한 의도는 다음 기사에서 더욱 분명하여진다. 이 조항 역시 實錄에는 누락된 부  
분이다.

今也與公轍轂 賚地悖常者流 比而同斥家煥 獨不茹蕘 又況彼而可斥而不斥 此而不可斥而單斥 其可乎<sup>(75)</sup>

즉 少論인 이동적이 남공철과 함께 이가환을 배척하는 행위를 견책하고 배척해야 할 사람은  
안하고 배척해서는 안 될 이가환을 배척하고 있다고 꾸짖고 있다. 여기서 배척해야 할 사람  
이란 그 세력이 강성한 老論임에도 불구하고 少論으로서 미약한 南人을 배척하는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

이 南人 李家煥을 옹호하는 기사에 이어 역시 實錄에 빠져버린 부분으로 庶孽에 대한 正  
祖 자신의 인식을 괴력한 부분이 있다.

更有餘意之擣及者 有才而等於叢如 齋志而無以自銜 甘與草木同腐者 俗所謂一名是已 欲譏人倫之常  
稱則反慕千里不同俗之俗 自知彙征之莫混 則嗜着十七子發憤之譚 至于咳唾揮弄之末 而動相撲畫 惕惕  
竊竊 鮮有能超然 銳拔於那裏 斯亦朝廷之責 非渠之罪也。<sup>(76)</sup>

속칭 「一名」으로 불리우는 庶孽들이 재주와 뜻이 있어도 그것을 폄불 수 없기 때문에 人倫  
之常을 알고자 천리밖 풍속을 사모하다가 결국 水滸誌의 十七子가 發憤하는 이야기를 즐겨  
읽고 우스갯소리를 내뱉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을 본뜨니 이 역시 그들 庶孽들의 죄

(75) 上 同

(76) 上 同

가 아니고 朝廷의 책임이라고 하여 治者로서의 原則論을 제시하였다. 즉 正祖로서는 이들 소외된 庶孽들이 체제부정적인 水滸誌 등을 읽고 사회질서나 名分에 위배되는 위험한 因子로 작용할까 우려한 것이다. 다음 부분 역시 實錄에 삭제된 부분으로 庶孽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어 가며 설명하고 있다.

如成大中吳正根之恭趨塗轍 予雅好之 等書二中 褒加十行 如朴齊家李德懋 棗尺朽而用寸長 開示向陽  
之編 且置大中齊家輩 幸而揚名者 間有崔峩 若而人尙云逖矣<sup>(77)</sup>

成大中 吳正根 등이 규법을 잘 따르는 것이 대견한 일이어서 그만한 褒賞을 한 것이며 朴齊家·李德懋 등도 庶孽이라는 특수 신분을 고려하여 약간의 배려를 한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역시 실록에 누락된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天之生才 不限地分 盡亦反觀於崔必恭 自誤而誤 其類之不億乎 此皆不拂其性 各適其器 以期其咸底會  
歸之妙也 予當更言於爾<sup>(78)</sup>

하늘이 인재를 낼 때는 地分(身分)에 따라 내는 것이 아님을 전명하고 정조 자신이 이들 庶孽들을 등용하여 조명하는 것은 평소의 지론인 「不拂其性 各適其器」의 適才適所라는 인재 등용의 원칙위에서 행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會歸之妙」를 기대하는 것이라 하였다. 「會歸之妙」란 앞서 이야기한 「會極歸極之妙」이며 결국 蕩平策의 원리인 것이다.

이상 실록에 누락된 부분의 다음은 두 기록에 모두 있는 것으로 다시 李家煥에 대한 옹호의 기사로 끝맺고 있다.

少論인 李東稷이 南人 타도의 목적으로 당대의 文華로서 正祖의 推輓을 받고 있던 李家煥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자 正祖역시 자신의 의도를 밝혀 西人系인 老·少論이 南人 타도의 의도에서 文體論이라는 당시의 時論에 빙자함을 견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개개인의 성명까지 열거하면서 腹心의 의도 蕡平策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원기록은 《正始文程》의 것이고 실록편찬때에 재편집하면서 자신들(즉 老論)에 관련된 부분은 삭제해버린 것이다.

이 批音에 뛰어어 正祖는 教를 내려

비록 批가 이미 내려갔지만 말에 涉禁한 곳이 많으니 原疏는 政院으로 하여금 불에 태우게 하라.<sup>(79)</sup>

는 조치를 취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文體論은 결국 黨論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蕡平策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로 강구된 것임을 알았다.

(77) 上 同

(78) 上 同

(79) 《正祖實錄》卷36 정조 16년 11월 辛丑「仍敎曰 雖已批下 語多涉禁 原疏令政院付丙」。

《正始文程》의 다음의 教書는 1795년(正祖 19) 4월 8일의 것인데 實錄에는 없었다.

奎草閣을 설치한 이후 講製文臣을 뽑아 旬製·月講한 것은 모두 作成의 苦心에서 나와 지금까지 15년간에 鼓吹하는 소리가 없는 바 아니라 가까운 데서 作變하는 것이 藻績之流(文采나게 수놓아 꾸민 글 종류)를 면치 못하고 이른 바 차츰차츰 멀치고 있는 癸卯選(1783년, 제 2회 초계문신)들도 비리한 곳은 너무나 비리하여 혐집이 아름다움을 가리지는 않지만 도리어 제 1회인 辛丑選 초계문신들의 多質함에도 못미치는 바 있다. 그리고 나머지 초계문신들은 兩選의 올타리나 담에 불파할 뿐이다.<sup>(80)</sup>

우리는 이 教書에서 비로소 앞의 《奎華名選》이 제 1회 辛丑選 및 제 2회 癸卯選의 초계문신들만 다룬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겠다. 즉 1·2회 抄啓文臣들이 根幹이고 나머지는 그들리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1794년 甲寅選 抄啓文臣에 이르러서는 기대했던 바에 합치하여 「掄選한 이래 드물게 보는 바」이며<sup>(81)</sup> 「역시 選 중의 勝事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sup>(82)</sup>

已有變更之效 此誠里仁爲美 入蘭同臭 其在爲世道矯文弊之道 豈忽激勸<sup>(83)</sup>

이라고 극찬하면서 이들로 인하여 世道를 위하여 文弊가 교정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격려하려는 뜻에서 甲寅選 抄啓文臣의 居首 崔光泰에게는 三字卿印 奉朝賀를 특별히 제수하였을 정도이다.<sup>(84)</sup>

正祖는 四色黨派 중 老論이 專權體制를 구축하고 있던 당시의 정치상황속에서 王權강화내지 王朝부흥의 사명감에서 四色의 상호견제를 위한 蕩平策을 선왕에 이어 계승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文體反正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文體論은 결국 정조의 고도한 정치술수에서 기인하는 바 당대의 通儒라 할 수 있는 학자적 소양을 밀바탕에 깔고 文體내지 文風 이런 糖衣를 입혀 文化政治를 표방함으로써 政治色을 표백시키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政治的 난제인 四色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그 결과 四色은 다시 時·僻 양파로 새로운 당파를 형성하였으니 1788년(正祖 12) 時派의 거두이며 正祖의 정책을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뒷받침하였던 鄭民始(1745~1800)가 時·僻을 논할 때 그 시원은 이미 1780년(正祖 4)부터이고 그 후 時·僻 두 자가 公言이 되어 서로 공격하는 바가 이를 데 없이 격렬하였다고 평하였다.<sup>(85)</sup>

(80) 《正始文程》卷1. 乙卯 四月 初八日教. 「設閣以後 選講製文臣 旬製月講 盖出作成之苦心 而于今十五年之間 非無鼓吹之音 眉目之作變 不免爲藻績之流 所謂差強之癸卯選 俚處太俚 瑕不掩瑜 反或讓一頭於辛丑選之多質 餘選皆兩選之藩籬堵牆」.

(81) 上揭書「自有掄選以來 所罕見」.

(82) 上揭書「亦可謂選中之勝事」.

(83) 上揭書

(84) 上揭書

(85) 《正祖實錄》卷25 정조 12년 4월 乙卯.

「文體反正」의 가치를 내건 蕩平策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老論系의 많은 人物들이 正祖의 지지세력인 時派로 전향하고 끝까지 黨論을 고수한 두리들은 僮派로서 강고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게 된다. 한편 實學派로 불리우는 畿湖南人들은 正祖의 원호를 받으면서 미약한 正祖의 세력기반에 있어 일익을 담당하였으니 蔡濟恭—李家煥—丁若鏞으로 이어지는 學者群이 그들이다.

아울러 당대의 사회문제로 되어 있던 庶孽들도 蕩平策의 원칙에 의하여 通清의 職으로서 奎章閣 檢書官에 등용된 것이다. 이들의 등용에는 물론 당대의 新學問인 北學을 奎章閣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의도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 맺 음 말

正祖의 인재수용 정책은 대개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奎章閣의 閣臣에 기성인을 포용하는 방식, 둘째는 37세이하의 연소한 文臣을 抄啓文臣으로 선발하여 재교육시키는 방법, 마지막 세번째가 成均館의 儒生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인재로 키우는 것이었다.

첫째의 閣臣에 임용되는 인물들은 이미 자기들을 굳힌 기성인으로 교육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는 벗어난 존재들이며 이들은 강고하게 자기의 黨色을 고수하면서 당론을 고집하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정조로서는 官職의 與奪, 상호견제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포용해 나아갔다.

두번째 抄啓文臣들은 이미 벼슬길에는 올라 있지만 대부분이 參外의 낮은 품계에 속하고 나이가 적은 문신들이기 때문에 正祖로서는 이들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재교육을 통한 자기의도의 반영, 그러한 교육과정에서 親試·親講 등의 구체적인 장치를 통하여 상호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어 포섭해 나아가는 대상으로 삼을 만한 대상들이었다.

세번째의 成均館 儒生 역시 正祖에게는 커다란 관심과 희망의 대상이었다. 이들은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교육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洋館儒生들로 표기되는 成均館 儒生과 상기 抄啓文臣의 교육은 同軌에서 이루어지며 그 試題도 같은 것으로 동시에 행해지기도 하였다. 위의 《正始文程》이 바로 그러한 시책의例證이 될 수 있겠다.

本考에서는 성균관 유생들에 대한 연구는 생략하고 抄啓文臣의 교육에만 총점을 맞추어 본 것이며 그 교육내용에 투영된 正祖의 文體政策을 살펴 보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文體에 대한 세 편의 策問 즉 ① 1784년(正祖 8) 成均館 儒生을 대상으로 한 親試 策問, ② 1789년(正祖 13) 抄啓文臣 親試의 御製 策問, ③ 연대불명이나 抄啓文臣의 課試에 넣 策問 중에서 두번째의 文體策만을 주로 분석·검토하였고 對策文으로는 정조에 의해 선택되어 《奎華名選》에 실려 있는 沈晉賢의 것을 주종으로 삼아 南人 實學派의 丁若鏞, 老論 北學派인 李書九의 것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學風의 차이에 따른 文體論의 相異를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이들 抄啓文臣들의 교육결과를 수렴시킨 《奎華名選》은 제 1회인 辛丑選(1781)과 제 2회인 癸卯選(1783) 초계문신들의 작품집으로 위에서 본 바 이 두 회의 초계문신들 이외는 올 터리에 불과하다는 정조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며 取舍選擇의 작업을 통하여 후진인 초계문신들에게 모범문을 제시하는 동시에 해당 초계문신들을 격려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도였다.

1795년 초계문신체가 15년이나 추진되고 나서 바로 전해(1794년) 甲寅選 抄啓文臣들이 제 진한 試券에 대해 응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와 함께 이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간행한 책이 바로 《正始文程》이다. 여기에는 成均館 儒生들의 것도 꼭 같은 비중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文體 문제에 관련시켜 黨色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결국 「文體反正」이란 蕩平策의 구체적인 장치임을 극명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따라서 抄啓文臣의 教育은 正祖의 文體政策의 기본틀이었으며 「文體反正」으로 표현되는 文體政策은 文體論이라는 단어에서 풍겨주는 文化的인 의미보다는 黨爭 특히 時·僻의 갈등이라는 정치적 배경을 깔고 전개되는 것이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